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밖에 만나서 인조만
눈으로 보기에는 화창하다.

제목 : 현재와 미래의 차이점

미래에 관한 책을 읽던 중 내가 쓰는 이 일기가 미래 사람들은 신기해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미래가 신기한데, 미래인들은 과거인들을 신기하게 바라볼 생각에

킥킥 웃음이 났다.

미래야 예상하면 되는데, 과거는 배워야 하지 않느가

배우는 거라... 미래는 무엇으로 배울까?

컴퓨터? 태블릿 PC? 아니면... 새로운 기계?

현재는 '교과서'라는 종이로 된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

곧 있으면 컴퓨터로 수업할 수 있게 된단다.

한 2015년쯤? 오야, 중학생이 됐을 때라니...

또대 킥킥 웃음이 나온다.

미래 사람들도 웃을까?

로봇이 생기면서 점점 시험이 사라진다고 미래에 관한 책이 그런다.

그럼,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저런 웃음이 사라지겠지?

웃음은 애플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만든단다.

하키야 미래에는 양이 워낙 존재가 되거나 할까?

지금도 초기에 발견하면 원리가 되는데...

음, 정말 정말 궁금한 것!

'타임머신'이 미래에는 생길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나도 타보곤 과거&미래를 다녀볼 뉘다.